



도, 군산수제맥주축제서 '스포츠 사진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 대표 축제인 '2026 군산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에서 체험형 홍보관을 운영하며 202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 확산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전북 스포츠 사진관'을 마련해 도내 스포츠 인프라와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알리고 올림픽 유치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홍보관은 전북이 개최할 각종 세계 스포츠대회와 주요 체육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전북이 쌓아온 국제 스포츠행사 운영 경험과 미래 비전을 시각적으로 전달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단순 홍보를 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강화했다. MZ세대를 겨냥한 '인생샷' 즉석 사진관을 비롯해 올림픽 홍보대사인 서승재·김이랑·정혁 선수 포토존, 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은 대형 트리트리트 포토존 등을 운영해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이어갔다.

도는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축제의 즐거움과 함께 전북의 올림픽 유치 열망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도록 유도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 축구 열기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분위기로 연결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이와 함께 축제에 참가한 주한미군대사관 관계자와 미국 타코마시, 일본 가고시마시, 중국 연태시 등 군산시 국제 자매도시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스포츠도시 전북의 국제 홍보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01만호 기자

'나누고... 비우고... 연결하다'

2026 예촌마당 쓰레기 없는 시민장터, 시민 참여 속 성황

남원시는 지난 13일, 예촌마당에서 개최된 2026 예촌마당 쓰레기 없는 시민장터(예쓰장)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예쓰장은 나누고, 비우고, 연결하는 장터'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시민과 공동체, 지역 생산자와 창작자들이 함께 참여해 자원순환과 친환경 생활문화를 실천하는 남원 대표 시민참여형 장터로 운영되었다.

행사 당일 예촌 마당에는 다양한 시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았으며, 시민들은 개인 텃밭과 장바구니, 다화용 용기를 직접 가져와 장터에 참여하는 등 생활 속 환경실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갔다. 또한 현장에 마련된 다화용기 대여소와 친환경 설거지 부스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예쓰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워크숍이 큰 인기를 끌었다.

'살장 위 밥그릇이'가 진행한 봄나물 취입 주먹밥 만들기 워크숍에서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주먹밥을 만들고 나누며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체험했다.

'무분류'의 대나무 죽공예 체험에서는 참가자들이 대나무를 활용한 생활용품 제작 과정을 배우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생활 방식을 경험했다.

또한 '무등산 라이더'가 운영한 자전거 수리 워크숍에서는 자전거 점검과 간단한 수리 방법, 안전한 이용 문화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이동수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장에 마련된 옷장, 책장, 문구장에서는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나누고 필요한 물품을 다시 가져가는 자원순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행사 전부터 진행된 책과 문구류, 생활용기 기부 캠페인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다.

이와 함께 지역 생산자와 사회적경제 조직, 환경단체들이 참여해 친환경 먹거리와 수공예품, 환경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예쓰장은 단순한 플라마켓이나 환경 캠페인을 넘어 사람과 사람,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과 환경을 연결하는 공동체 장터로 운영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장터 추진단 관계자는 "예쓰장은 물건의 순환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터"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덕분에 올해도 의미 있는 장터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예쓰장은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남원형 자원순환 문화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지역 생산자와 사회적경제 조직, 환경단체들이 참여해 친환경 먹거리와 수공예품, 환경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예쓰장은 단순한 플라마켓이나 환경 캠페인을 넘어 사람과 사람,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과 환경을 연결하는 공동체 장터로 운영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장터 추진단 관계자는 "예쓰장은 물건의 순환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터"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덕분에 올해도 의미 있는 장터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예쓰장은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남원형 자원순환 문화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영승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전북지부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승경)는 최근, 최영승 이사장이 전북지부를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경영을 통해 보호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이사장은 전북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허그맘, 직업훈련, 주거지원, 사전상담 등 보호대상자의 지원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또한 업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적극 행정 실천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전북기술교육원을 방문해 직업훈련 운영 현황과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보호 대상자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활성화 및 취업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지부 법무보호위원들과 자원봉사자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한명웅 전북지부협의회장, 김택민 사회봉사상위원회 회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신흥유선자 대표 등이 참석해 보호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01만호 기자



축사 지봉공사 추락사고 예방 가축시장 동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KOSHA, 본부장 이상열, 이하 공단)는 15일 임실축협가축시장에서 축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축사 지봉공사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축사 지붕 개·보수 작업 중 떨어질 사고를 예방하고, 축산농가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단은 이날 임실축협 조합원들과 함께 가축시장을 방문한 사업주 등 관계자들에게 축사 지붕공사 안전수칙이 담긴 지식형 안내지표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배포했다. 아울러 공단 긴급자동차에 '축사사고 예방 안전조치' 차라를 지식시트를 부착하여 지역사회 전역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동형 홍보를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봉공사 안전 점검사항 안내와 더불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축산농가를 위한 '추락방지 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 공단의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01만호 기자



정읍 내장상동, 학산중에서 제5회 작은 음악회

정읍시 내장상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3일 학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제5회 작은 음악회를 열고 지역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가 후원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이웃과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무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준비한 노래 교실과 라인댄스로 막을 올렸다. 이어 56봉 통장 학산고등학교 댄스팀 '디샤', 청소년 장구 동아리 '뉴인드레토리'가 번갈아 무대에 올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주요 공연자로 나선 정수리는 특유의 열정적인 노래를 선보였다.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이 이어지면서 행사장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음악을 즐기는 과정에서 서로 정을 나눴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는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주생 그린파크골프장 개장식

남원시는 지난 13일, 36홀 규모로 확장된 주생 그린파크골프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주생 그린파크골프장은 2024년 18홀 개장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확장 사업을 추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총사업비 10억원(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투입해 기존 18홀을 36홀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36홀 확장 개장으로 그동안 구장 부족을 겪었던 시민들과 관내 1,400여 명 파크골프 회원, 인근 지자체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산림청, 제15회 전국 민관군 합동 산악구조 경진

고창군과 산림청이 2026년도 전국 민·관·군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를 지난 13~14일 고창군 아산면 할매비루와 선운산 일원에서 열었다.

이번 대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 후원했다.

대회는 3년 연속 고창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산악구조 행사로, 전국 산악구조대원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존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에서 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대회로 확대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공본부와 지상 구조대가 함께 참여하는 항공·지상 합동 산악구조 및 산악구조 시연이 진행됐다. 대회에 선 등반, 힐링, 어센딩, 수색, 들것 이송, 응급처치 등 산악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실천 중심의 구조 기술 경연이 펼쳐졌다.

대회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할매비루와 선운산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안전산행 캠페인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산악구조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안전한 산행 문화 확산과 자연보호 실천에도 함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환경·안전 통합교육 성과... 전기안전공사, 기후부 장관 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제5회 환경교육주간에서 환경교육 활성화와 국민 환경의식 제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환경교육과 현장 개선을 연계한 실천형 교육모델을 구축하고 전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패트롤과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근로자의 안전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사옥 시설점검을 통해 700여 건의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며 위험요인 발굴부터 개선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업계 종사자의 작업 환경 개선과 환경·안전 교육 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서며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작업환경 개선, 특수건강검진 유해물질 취급자 정기교육 등을 추진하며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직원 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질병성 산업재해 '제로(Zero)'를 달성하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성과를 내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남부안농협, 농번기 맞아 농촌일손돕기 나서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12일 임직원들이 나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부안농협은 관내 양파 재배농가 일손 지원에 구슬땀을 흘리며, 매년 농촌 일손돕기를 실천하고 농가 실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자봉센터,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맞손'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15일,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지연)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을 비롯한 시 관계자 및 센터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등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대하여, 다각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복지 지원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17일에는 청소년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관장 서대현)'과 협약을 체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봉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19일에는 중증발달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햇빛대표이사 임대영'을 방문해 세 번째 업무협약을 맺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계농협, 아동돌봄센터에 학습꾸러미 전달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과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정현주)는 지난 12일, 장수군 계북면에 위치한 '장수 YMCA 장수군 계북 다함께 돌봄센터'를 방문해 지역 아동들을 위한 학습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돌봄센터에 지원된 학습꾸러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농촌 아동들을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이 일상학습과 조형 활동,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기구, 노트,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 필수 문구류와 학습 교재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군 농촌활력과, 양파 수확 농촌일손돕기

부안군 농촌활력과는 15일 상서면 양파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파 수확 시기를 맞아 농촌 인건비 상승과 계절근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활력과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농가 현장에 투입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했다.

농촌활력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현장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